

성결교회 자료집



성결교회 주일 총회장 격려사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국내외 모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07년 역사의 격동기에 접어든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뿐이라는 일념으로 김상준, 정빈 두 분에 의해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한지 어언 117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우리 신앙 선배들의 순교 정신과 열정 어린 헌신으로 이제는 국내외 3,160여 교회의 교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117년차 교단 표어를 ‘한성도, 한 영혼 주께로!’라고 정했습니다. 교단 설립 12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해마다 성결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 사람을 주께로 전도해 오자는 의미입니다. 저는 모든 성결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 한성도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성결교회 교인이 한 해에 30%씩 늘어난다면, 교단 설립 120주년이 되는 2027년에는 명실상부한 80만 성도의 교단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성장을 이룬다면 세례교인이 줄어 교단의 위상이 약화하는 것에 대한 염려도 해소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견되는 지교회의 재정난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은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끝없는 혼란과 불안정의 저변에는 도덕성의 결여와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성결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부터 올곧게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결의 현대적 의미 중 강조해야 할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정화해 나가는 사회적 성결일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결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성결 운동이 영국 사회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전설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할 영적 운동, 성결 운동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모든 교회가 성결성 회복과 사회적 사명, 선교의식의 고취, 그리고 교단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 5. 26.

총회장 임석웅 목사

성결교회 주일 교단총무 인사말

1907년 이 땅은 큰 변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헤이그 밀서 사건을 이유로 강제 퇴위를 당하고 곧이어 대한제국군이 해산되었습니다. 일본은 이완용을 비롯한 정미칠적(丁未七賊)과 함께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한일신협약,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미7조약이라고 배우는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됩니다. 몇 해 전 초기 독립군의 이야기를 담은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오로지 어둠만이 이 땅을 덮고 있던 그때, 1907년 5월 31일 경성 무교에서 북을 치며 나팔을 불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생 · 성결 · 신유 · 재림의 사중복음을 들고 오로지 구령의 열정만으로 시작한 김상준과 정빈의 후예들이 120년을 지나며 50만 성결가족으로 부흥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했다지만, 우리 성결교회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가장 부흥한 교단의 하나로 소개되며 지금도 한국교회를 이끄는 7대 교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직접 전도의 전통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중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습성은 사중복음을 때로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품으로 취급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가진 소중한 보물을 다시 한번 꺼내어 갈고 닦는 작업을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소중한 복음의 정수를 잘 꿰어 목회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2024년 성결교회 주일 자료집이 바로 그 구슬을 꿰는 실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료집을 사용하는 모든 교회마다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교단총무 문창국 목사

발간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동경성서학원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정빈과 김상준 두 청년이 1907년 5월 경성 종로 염곡에 ‘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설립하고 전도를 시작한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전도 표제로 삼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러한 신앙 선배들의 신앙을 계승하고자 매년 5월 마지막 주를 ‘성결교회주일’로 지키며 신앙 선배들의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17년차 총회는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의 슬로건 아래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힘썼습니다. 이에 제117년차 총회 선교부에서는 이러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성결교회 주일 자료집을 발간하여 모든 성결교회에 자랑스러운 성결교회 신앙의 유산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교회에서 성결교회 주일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1. 사중복음 예배자료, 2. 사중복음 설교자료, 3. 성결교회주일 강의 자료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서울신학대학교 글로벌 사중복음 연구소(소장 오성욱 박사)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결교회 신학과 신앙의 전통에 있는 사중복음 예배자료와 사중복음 설교 자료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령에도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강자료는 성결교회의 역사와 사중복음 신앙에 대한 유익한 자료들이 될 것입니다. 바라는 성결교회 주일 자료집의 예배와 설교, 강의 자료들이 전국의 모든 성결교회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성결교회 주일을 통해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유산들이 아름답게 계승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2024년 5월 선교부장 김양태 목사

1. 이 예배의 형식은 <예배와 예식서>(2016년)의 주일예배 1 과 기타 공예배 중 구령회(The Salvation Meeting)를 블랜디드한 것이다.
2. 주일예배 1형식은 초기한국성결교회가 드리던 전도중심의 선교지향적인 예배로써 미국의 프론티어 예배(Frontier Worship)에 기초하고 있다. 프론티어 예배는 찬송과 찬송 사이에 뜨거운 기도와 회심을 위한 복음적 설교가 들어가는 일명 ‘찬송 샌드위치’예배라고 불리 운다. 프론티어 예배는 구령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예배 끝부분에 결단을 위한 회심자의 초청이 있었고, 회심자에게 세례를 거행한 이후에 성찬에 참여케 하였다.
3. 1907년‘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으로 시작한 초기성결교회는 1921년 명칭을 복음전도관에서 성결교회로 바꾸고, 1925년 <교리와 조례>를 제정하여 교파교회로 전환하기 전까지, 초기성결교회는 전도본위의 선교단체로써 구령(救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노방전도식 집회가 구령회(The Salvation Meeting)이다.
4. 초기 한국성결교회는 주일에 새벽기도회, 주일낮예배, 주일오후예배, 주일저녁예배, 총 4번의 예배를 드렸다. 구령회는 구원받지 못한 자나 초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일저녁집회였다. 하여 구령회에는‘은혜좌’라는 독특한 예배 순서가 있었는데, 회개하고 회심하고자 하는 심령들을 지정된 의자로 초청하여 안수기도해 주는 순서였다. ‘은혜좌’로의 초청은 주일 낮에도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예배는 구령을 목적으로 하기에 전체적인 예배와 설교의 주제는 회개와 믿음, 용서, 거듭남, 칭의, 양자됨의 은총, 즉 중생이었다.
5. 구령회 예배의 구성요소는 손뼉을 치며 부르는 긴 찬양, 몸을 흔들며 드리는 뜨거운 통성 기도, 반복적인 찬양, 눈물의 기도, 더 뜨거운 찬양, 설교, 설교 전후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간증, ‘은혜좌’로의 초청 등으로 단순하다.
6. 본 예배는 이러한 예배의 기원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성결교회역사와 삼위일체 신학을 배경으로 기도가 작성되고, 찬송은 21세기 새 찬송가 중에서 성결교회 찬송가(부흥성가)와 성결운동의 계보에 있는 작곡, 작사가를 중심으로 회개 또는 구원과 관련된 찬송들로 구성하였다. 예배의 축복기도는 삼위일체 축도(고후13:13)의 전형과 사중복음을 조우시킨 것이다. 예배의 입례부분에 회개와 찬송, 중생을 강조하는 설교, 회심으로의 초청(은혜좌), 파송찬양 174장(찰스 웨슬리)은 재림신앙으로의 각성을 요청한다.
7. 모든 개신교 예배는 법이 아니라 표준(standard)이다. 하여 목회자는 지교회에 적합한 요소들을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예배를 디자인할 때, 예배의 구조와 구성이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개신교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과 부합하여야 한다. 나아가 복음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배기원/ 인도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호 6:1-2). 한없는 은총으로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옷을 찢으며 재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 () / 다같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214장) / 천부여 의지 없어서(280장)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교독문 / 요 3: 3-17 / 인도자와 회중

인도자 :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회 중 :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오니 거듭남의 비밀이 놀랍습니다.

인도자 :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회 중 :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인도자 :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 중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인도자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회 중 :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간증 / 말은이 또는 자원하는 자

찬송 / () / 다같이

(회개와 관련된 찬송을 여러 곡 연속하여 뜨겁게 부른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250장) /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280)

성경봉독 / 말은이

설교 / 말은이

찬송 / () / 다같이

(믿음 또는 구원과 관련된 찬송을 여러 곡 연속하여 뜨겁게 부른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305장) / 죄 짐 맡은 우리 구주(369장)

통성기도 / () / 다같이

은혜좌(恩惠座) 초청 / 자원하는 자

(회중석 앞에 별도로 마련된 의자 곧 ‘은혜좌’에 앉아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초대할 수 있다. 목사는 안수하여 회심을 결신하도록 한다.)

고백과 용서 / 인도자와 회중

인도자 :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출34:6-7b)

회 중 : 아멘.

인도자 :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같이 : 사랑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줄 알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든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여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침묵으로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한다.)

인도자 :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당신)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 중 : 아멘.

주의 기도(송) / 하늘에 계신(635장) / 다같이

축복기도 / 목사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교통하시며 영육간에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폐회찬송 / 대속하신 구주께서(174장) / 찬양대

1. 이 예배의 형식은 <예배와 예식서>(2016년)의 주일예배 1 과 기타 공예배 중 성별회(Holiness Meeting)를 블랜디드한 것이다.
2. 초기성결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성별회’로 드렸다. 성별회는 중생에 초점이 맞추어진 구도자 중심의 ‘구령회’와 성격이 다르다. 성별회는 중생의 경험을 한 신자가 영적으로 한층 더 각성하여 성결에 은혜를 받기 위한 집회였다. 성결교회의 예배는 구원론에 입각하여 중생 이후에 성결이라는 단계적 이해를 예배에 반영하였다. 하지만, 중생과 성결의 순서와 다르게 주일오후에 성별회를 먼저 드리고, 주일저녁에 구령회를 드렸다. 왜냐하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초신자를 전도하여 그들도 구원받도록 구령회로 이끌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3. 성별회는 정빈, 김상준이 동경성서학원 유학시절에 참석했던 예배이다. 이들이 귀국 한 후, 성별회는 한국성결교회 주일예배의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 성별회는 오후예배뿐 아니라 언제든지 예배 중에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영적 집회였다. 하여 예배의 구성요소는 구령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기도의 성격이 달랐다. 성별회는 지속적으로 순간적인 성령세례를 구하는 것이었다. 하여, 성별회 또한 예배의 단순함과 찬송의 반복을 통해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성별회는 특히 예배의 주관자요 주체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였기에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예배 인도자는 성령에 민감하여 그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즉흥적이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비예전적 구조였다. 하여 본 예배를 거행할 때 짜여진 구조에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4. 성결교회 형성에 직접적인 조명을 주고 있는 인물들의 교회적 배경은 다양하다. 존 웨슬리와 한국성결교회 초대 감독인 존 토마스는 성공회이다. 미국의 만국성결교회 설립자인 마틴 W. 뱀과 동양선교회 설립자인 카우만, 길보른, 나까다 쥬지는 감리교이다. 세스 C. 리스는 웨이커이다. 이러한 다양한 교파 배경에도 불구하고 모두 성령사역에 집중한 성결운동가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하여 성령사역을 중시하는 성별회는 예배 중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설교 중에 언제든지 간증과 치유를 허용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5. 성별회 예배의 구성요소는 구령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기도의 성격이 거듭남의 은혜인 중생이 아니라 성결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세례였으며, 찬송과 설교 또한 그러하였다.
6. 따라서 본 예배의 통일성은 성결의 은혜이다. 기도의 마무리는 중생과 동일하게 삼위일체와 사중복음의 마무리일 뿐 아니라 예배기원, 교독문(행2:1-21) 등 기도의 내용이 성령세례와 밀접하다. 찬송은 중생과 마찬가지로 성결교회 찬송가(부흥성가)와 성결운동의 계보에 있는 작곡, 작사가를 중심으로 성령세례 또는 성령과 관련된 찬송들로 구성하였다. 파송찬양(신증복음가)에서 재림신앙으로 결단을 요청하는 181장이다.

예배기원/ 집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행 2:17-18).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물 붓듯 부어주신 하나님, 심령이 거둔난 저희 각 사람에게도 불과 같이 임하시어 다시 한 번 성령충만케 하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과 함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 () / 다같이

너 성결키 위해(420장) / 내가 예수 믿고서(421장)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교독문 / 행 2:1-21 / 다같이

인도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회 중: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인도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회 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인도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니

회 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였습니다.

인도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회 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인도자: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회 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간증 / 말은이 또는 자원하는 자

찬송 / () / 다같이

(성령과 관련된 찬송을 여러 곡 연속하여 뜨겁게 부른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250장)/ 주 예수 내맘에 들어와 계신 후(289장)

성경봉독 / 말은이

설교 / 말은이

찬송 / () / 다같이

(성령과 관련된 찬송을 여러 곡 연속하여 뜨겁게 부른다.)

먹보라도 더 검은(423장) /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소(426장)

통성기도 / () / 다같이

(질병 및 기타 여러 문제들을 내어놓고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다. 기도제목들이 회자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성령세례를 간구하는 기도 / 다같이 통성기도 후 인도자

(통성으로 기도한다. 기도하며 안수할 수 있다. 통성기도 후 인도자가 기도한다)

깊은 탄식으로 신자들의 연합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성전으로 삼고 거주하시겠다고 하신 저희의 육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오니,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여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된 저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옵소서. 하여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전파를 위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송) / 하늘에 계신(635장) / 다같이

축복기도 / 목사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교통하시며 영육간에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폐회찬송 / 하나님의 나팔소리(181장) / 찬양대

신유의 은혜를 구하는 주일 예배

일려두기

1. 이 예배의 형식은 <예배와 예식서>(2016년)의 주일예배 1 과 기타 공예배 중 신유(Divine Healing)를 블랜디드한 것이다.
2. 치유는 가르침, 선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중 하나이다. 본 교단은 신유를 교단의 핵심교리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신유예식은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공적인 집회 시간에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권장된다.
3. 성결교회 전통에서 신유는 은사증지론과 같은 신학적인 견해를 성경보다 앞세워 사도시대와 함께 종결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헌법』에서 신유는 하나님의 보호로 건강 중에 지내는 것과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하여 성결교회는 신유를 모든 신자의 특권으로 설명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든지 안수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통이기도 하며, 직접적으로 미국 만국성결교회와 동양선교회를 통해 이어진 한국성결교회의 전통이다.
4. 성결교회 신유(Divine Healing)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charis)의 결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신유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믿음은 신유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이다. 하여 성결교회 신유는 은사자의 자질이나 능력(charisma)에 귀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계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성결교회 신유는 은사주의나 은사증지론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에 집중한다.
5. 하여 신유를 구하는 기도문은 쓰여진 기도로 되어 있지만, 목회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언어로 재량껏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리 쓰여진 기도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의미 없는 말을 길게 쏟아 놓지 않으면서도, 적절할 상징적 행위와 기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환자를 초청하여 함께 중보기도할 때는 즉흥적인 기도가 강력하고 유익하나, 목회자가 이를 마무리 할 때에는 잘 정제된 쓰여진 기도가 유익하다. 특히 신유의 은혜를 듣기만 하는 구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현존을 구어적으로만 경험하는 한계를 넘어서서 예배의 비구어적인 차원을 회복시킬 수 있다. 신유 예배는 기도와 치유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다차원적인 표현 양식을 구현할 수 있다.
6. 본 예배의 모든 기도문 또한 성결교회역사와 삼위일체 신학을 배경으로 작성되었다. 찬송은 21세기 새 찬송가 중에서 신유와 관련된 찬송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성결교회 신유의 역사는 중생과 성결의 은혜와 무관하지 않기에 치유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죄의 고백과 용서를 첨가하였다. 또한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기름부음의 예식을 포함시켰다. 기름부음이 용이치 않을 경우에는 성경 전통에 따라 십자가의 인침도 무방하다.

예배기원/ 집례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4-16).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서로 자신의 죄를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치료자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337장) / 다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교독문 / 시편 시80:7-17, 18b / 다같이

인도자 : 만군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회 중 :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 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인도자 :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회 중 :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인도자 :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회 중 :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인도자 : 숲 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회 중 : 만군의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인도자 :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나이다

회 중 : 그것이 불타고 베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인도자 :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회 중 :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간증 / 치유를 체험한 사람 / 말은이 또는 자원하는 자

찬송 / () / 다같이

나의 몸이 상하여(470장) / 주여 나의 병든 몸을(471장)

성경봉독 / 말은이

설교 / 말은이

찬송 / () / 다같이

(치유 또는 회복 관련된 찬송을 반복해서 뜨겁게 부른다.)

괴로움과 고통을(473장) / 의원되신 예수님의(474장)

치유를 위한 기도 / 인도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건강의 근원이 되십니다.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신유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들(딸) 000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생명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궁핍한 자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모든 질병과 허약함이 그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과 용서 / 인도자와 회중

인도자 :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 중 : 아멘.

인도자 :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 중 :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 범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웃을 저희자신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저희 속에 건강함과 진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진실로 참회하며 겸손히 엎드려 비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잠시 침묵으로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한다.)

인도자 :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 중 : 아멘.

인도자 :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건강의 근원이 되십니다.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신유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들(딸) 000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생명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궁핍한 자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모든 질병과 허약함이 그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치료자 성령과 함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초청 / 인도자

(기도 받기를 원하는 환자를 앞으로 나오게 한다.)

찬송 / 네 병든 손 내밀라고(472장) / 다같이

통성기도 / 다같이

(환자를 위하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다. 목사는 머리에 손을 얹고 평신도는 함께 참여하되 수치심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있다.)

기름 부음을 위한 기도 / 인도자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사도들이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성유를 구별하사 믿음으로 이 성유를 바르며 주께 구하는 주님의 아들(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여지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 / 인도자

(목사는 환자의 이마에 기름을 바르며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다중에게 동시에 치유예식을 행할 경우, 기름 부음 없이 각자가 자기 환부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목사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00 형제(자매)에게 기름을 바르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이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아멘.

기름 부음 후 기도 / 인도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저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저희보다 더 000형제(자매)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000 형제(자매)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000 형제(자매)를 모든 질병과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구하시고 강건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와 여기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송) / 하늘에 계신(635장) / 다같이

축복기도 / 목사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교통하시며 영육간에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폐회찬송 / 주 예수의 강림이(179장) / 찬양대

재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일** 예배

일러두기

1. 이 예배의 형식은 초기한국성결교회 예배인 <예배와 예식서>(2016년)의 주일예배 1 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다.
2. 재림 곧 파루시아(parusia)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도래를 뜻한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확고한 재림의 신앙에 기초하는 예배공동체였다. “내가 속히 오리라”주님의 말씀에 따라 재림 신앙은 신앙생활의 제 요소로써 ‘이미’와 ‘아직’사이에서 깨어있는 신앙, 경성하는 신앙으로 긴장을 유지시킨다. 초대교회부터 지연된 재림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교회공동체에게 재림의 소망은 예배를 통하여 유지되었다. 또한 재림은 환난 중에 있던 초대교회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한국성결교회에게도 종말의 공의를 실현하는 복음적 종말론이었다. 성결교회의 사명은(『헌법』 8조) “주의 재림의 날에 티나 주름 잡힘 없이 영화로운 교회로 서게” 하는 것이다.
3. 초대교회 예배에는 간단한 환호들이 사용되었다. ‘아멘’(Amen)과 ‘알렐루야’(Alleluia)는 유대 의식에서 계승된 것이다. ‘아멘’은 찬양과 축복의 확증으로, 감사에 대한 응답, 다른 기도나 찬송과의 연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알렐루야’는 시편의 시작과 끝에 오는 예배 중에 드리는 환호였다. 아바’(Abba)와 ‘마라나타’(Maranatha)는 아람어로 된 예배 중 환호로써 초기유대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의 기도 중에 알려진 ‘아바’는 팔레스타인 지역 밖의 교회에서도 알려졌다(롬8:15; 갈4:6). 재림의 복음과 깊은 관련된 ‘마라나타’(고전16:22; 계22:20)는 ‘우리의 주님의 오셨다’(maran atha)와 ‘우리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marana tha)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라나타는 주의 다시 오심을 선언하는 기대와 기다림의 고백이었다.
4. 본 예배는 성결교회역사와 삼위일체 신학을 배경으로 기도가 작성되었다. 찬송은 성결교회 찬송가(부흥성가)와 성결운동의 계보에 있는 작곡, 작사가를 중심으로 재림과 관련된 찬송들로 구성되었다. 교독문은 재림과 관련된 성경구절로 구성되었다. 재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는 세계선교, 한 영혼 전도, 공의의 실현 등이 적절하다. 마지막에 파송기원으로 인도자와 회중이 ‘마라나타’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연도식 환호를 주고받은 후에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후 파송찬양은 이성봉 목사님이 작사한 재림에 관한 찬송 ‘부활승천하신 주께서’(181장)이다.

예배기원/ 집례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부활 승천 하셔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과 함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 대속하신 구주께서(174장) / 다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교독문 / 행1:11; 마 24:3-14, 살전4:16-17 / 다같이

인도자 :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회 중 :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인도자 :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회 중 :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저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인도자 :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회 중 : 저희는 끝까지 견디 구원을 받게 하소서.

인도자 :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회 중 : 저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옵소서.

찬송 / () / 다같이

(재림과 관련된 찬송을 한국을 여러 번 또는 여러 곡 연속하여 뜨겁게 부른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175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176장)

성경봉독 / 말은이

설교 / 말은이

찬송 / () / 다같이

(재림과 관련된 찬송을 한국을 여러 번 또는 여러 곡 연속하여 뜨겁게 부른다.)

오랫동안 고대하던(177장) / 주 예수 믿는 자여(178장)

중보기도 / 다같이

(세계선교와 전도를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공의와 전도를 위한 기도 / 다같이 통성기도 후 인도자

(통성으로 기도한다. 기도하며 안수할 수 있다. 통성기도 후 인도자가 기도한다)

왕이신 하나님,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사오나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오니, 저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의 재림의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림은 모든 신자의 소망이며 피조물의 고대함이오니,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저희 모두를 주께서 베풀어주실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세계 선교와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송) / 하늘에 계신(635장) / 다같이

파송기원 / 인도자와 회중

인도자 : 마라나타!

회 중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축복기도 / 목사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교통하시며 영육간에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폐회찬송 / 부활승천하신 주께서(181장) / 찬양대

1. 이 예배는 초대교회 4-6세기의 예배의 사중구조(입례-말씀-성찬-파송)와 사중복음(중생-성결-신유-재림)을 블렌디드한 형식이다. **입례**는 죄의 고백과 용서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이 중생의 의미로 반영되었다. **말씀**은 구약-서신서-복음서 봉독이라는 초대교회 전통과 설교를 살리며,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요17:17; 딤후4:5)는 성결의 의미가 반영하였다. **성찬**은 영적자양분으로써 생명의 빵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강건하여지는 신유의 의미가 반영되었다. **파송**은 초대교회의 마라나타 선포와 파송찬양(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소망으로 재림의 의미가 반영되었다.
2. 개신교복음주의 전통에 따라 주님의 날에 맞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강조하며, 만인제사장직의 신학을 반영하여 예배의 모든 순서에 회중의 능동적 참여를 제고하였다.
3. 예배는 묵도로 시작하지 않으며, 예배 기원 앞에 예배 인사를 하는 것은 유대로부터 시작한 초대교회 전통이다. 예배인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도자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회 중 : 또한 당신(목사님)과도 함께 하십니다.
인도자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회 중 : 아멘.

4. 예배기원과 성찬기도는 교회력과 그날 예배의 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초대교회 예배에서 성경은 구약, 서신서, 복음서, 이렇게 세 곳을 읽었으나 본 예배에서는 종교개혁자의 전통에 따라 설교를 위한 한 구절만 선정하도록 하였다.
6.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와서 떡과 잔을 받는다. 성찬에서의 떡과 잔은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인식된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집례자와 회중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떡과 잔에 참여한다.

집례자: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주고,
회 중: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받는다.
(또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집례자: 주님의 몸, 천국의 떡입니다. 주님의 피, 구원의 잔입니다.
집례자: 주님의 몸,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의 피, 기쁨의 잔입니다.

7. 성결교회는 예전적 예배부터 비예전 예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본 예배는 초대교회와 존 웨슬리의 전통에 따른 예전적 예배이다.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앉아서)

입 레 예 전

*인사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회 중: 또한 당신(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집례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회 중: 아멘.

(자리에 앉는다.)

찬송 / 만 입이 내게 있으면(23장) / 다같이

예배기원/ 집례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3-24). 영광이 충만 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저희 성결교회 공동체 위에 주의 물과 성령을 부어 주시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거룩한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 중: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으며,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집례자: 잠시 침묵 가운데 각자의 죄를 고백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반주자의 전주와 함께 자비송을 부른다.)

자비송 / 주여 주여 우리를(632장) / 집례자와 회중

사죄의 확신 / 집례자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혜의 확신을 선포한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말 씬 예 전

감화를 위한 기도 / 집례자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열어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임해지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 () / 말은이

(말씀을 읽기 전에)

봉독자: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서()장()절부터()절입니다.

(말씀을 읽은 후에)

봉독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아멘

회답송(시편송)/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637장)/찬양대

설교 / () / 말은이

(설교 후에 초청과 결단의 시간을 가지면 좋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대표기도 / 말은이

(기존의 대표기도 방식 외에, 말은이와 회중이 교독하는 연도나 통성 기도도 좋다.)

평화의 인사 / 다같이

집례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

회 중: 주님의 평화!

(회중은 모두 일어나서 주님의 평화!라는 말과 함께 악수나 인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와 화해를 주고받는다.)

성 찬 예 전

찬송 및 봉헌 / 아무 흠도 없고(229장) / 다같이
(찬송이 진행될 때 떡, 포도주, 그리고 헌금을 앞으로 가져와 봉헌한다.)

봉헌기도 / () / 말은이

식탁으로의 초대 / 집례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성찬기도 / 집례자와 회중

(예배인사와 마음을 드높이)

집례자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회 중 : 또한 당신(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집례자 : 주님을 향하여

회 중 :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집례자 : 주님께 감사합니다.

회 중 :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도입기도)

집례자 :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저희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광명의 빛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율법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삼성송)

다같이 : 거룩 거룩 거룩(629장)

(제정사)

집례자 :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떡을 집는다) 축사하시고(떡을 높이 올린다) 떼어(떡을 떼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떡을 내려놓는다).

(제정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저희가 주님의 창조물로부터 이 빵과 잔을 취하여 정성껏 주님께 바치오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축합니다.



(성령임재기도)

집례자 :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바쳐진 이 예물들 위에, 이 시간 성령을 보내 주시사,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들이 저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저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송영)

집례자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



주의 기도(송) / 하늘에 계신(635장) / 다같이

성찬 참여 / 다같이

(성찬 찬송 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와 성찬에 참여한다.)

배찬자 : 주님의 몸(입니다). **수찬자** : 아멘.

배찬자 : 주님의 피(입니다). **수찬자** : 아멘.

성찬 후 기도 / 집례자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식탁에서 먹여 주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먹게 될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저희를 보내 주시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 송 예 전

새신자 환영 및 광고 / 집례자

(일어서서)

교단가 제창 / 성결교회 노래 / 다같이

파송기원 / 인도자와 회중

인도자 : 마라나타!

회 중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축복기도 / 목사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교통하시며 영육간에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찬송 / 부활승천하신 주께서(181장) / 다같이

(회중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 집례자와 예배위원이 퇴장한다.)

1. 사중복음 총론 설교

사중복음과 하나님 나라 (행 1:1-11)

사중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12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어떤 영적 싸움이 있으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알려주셨고, 12제자 공동체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알려주셨고, 신약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도들을 보내어 알려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빈틈없이 정확하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뚜렷이 들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결교단이 창립 시부터 주창하고 선포해온 사중복음이며,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드러난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중복음은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는 ‘적어도’ 이 네 가지 복음의 차원이 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의 사중복음’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다 강조하지만 그중에서도 ‘성결’을 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에 교단의 이름까지 성결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중복음은 각기 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약화되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중복음은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복음을 강조하는 모든 복음주의 신앙공동체의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주는 중생의 복음

첫째는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중생의 복음입니다. 중생의 복음은 세상 왕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노예가 스스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믿고 따랐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마침내 하나님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 신분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도 동일한 기쁜 소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세상의 죄악과 우상숭배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에 속한 삶에서 썩지 않을 영에 속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행 2:3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성결의 복음

둘째는 성결의 복음입니다.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된 자유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곧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과연 살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까? 첫째 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역시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신분에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생하기 전에 세상에서 섬겼던 왕들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여 중생한 후에도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의 신들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랑, 순수한 관계가 아닌 것은 싫어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속에는 다른 것들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른 왕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제1계명이 깨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갑니까? 아니면 자본의 논리로 우리의 삶이 돌아갑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나는 제1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지를 분명하게 묻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1계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1계명을 따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유언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오직 성령이 임할때에야 너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한다.” 성령이 중생한 자녀들을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아 충만한 상태가 곧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게 되는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차면, 다른 신들이, 다른 무엇이 끼어들어 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곧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면 주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케 하는 신유의 복음

셋째는 신유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를 향하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한 마디로, 이웃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여 치유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는 영과 혼과 육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생노병사의 길을 밟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국가와 사회, 온 세계 인류가, 그리고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이 영과 혼과 육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육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신유의 복음입니다. 병든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받고 이 땅위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등 모든 질병은 여러 이유로 인하여 관계가 분리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될 때 영혼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분리될 때 마음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자연과 분리될 때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떠한 관계든지 분리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유기적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오직 사랑의 힘만이 작용합니다.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 되어 분리된 자들이 다시 하나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와 사랑의 영으로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분리된 모든 관계들이 재결합을 이루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에, 마음의 세계에, 육체의 세계에 차별 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언제나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최후 승리를 선언하는 재림의 복음

마지막으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도 강력하게 세상을 자신들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심히 미약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의 영향력을 못 미치고, 우리들끼리 만의 사적인 종교 집단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16세기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유럽의 전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교황의 가톨릭 세력에 비할 때 마치 커다란 곡식 가마 밑에 깔린 서너 개의 알곡 같다고 말한 장 칼뱅이 겪었던 영적 상황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재림의 목적은 제자들과 교회에 맡겨놓고 승천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본 천년왕국이 상징적이든, 실제적이든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위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송구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왕권을 가지고 공의에 입각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첫 번째 기준은 어린양의 보혈로써 하나님과 화해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지를 보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칼뱅주의자가 되었든, 웨슬리안이 되었든 간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겨진 보혈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 나라 패스포드입니다. 하나님 나라 패스포드가 자신의 심령에 간직되어 있는 자만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두 번째 기준은 심판에 합격하여 통과된 자들만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상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드러냈는지를 보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것들은 최후의 심판자이신 주님이 오실 때 만전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의를 따라 살다 꾀박과 손해와 역울한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 이상으로 복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 가운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본받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중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 나라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위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중생: 세상 왕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남의 복음, 중생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모시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이나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과 곁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신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신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변의 영혼육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자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때 모든 질병과 고통의 원인인 분열이 치유되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재림: 그리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위에서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왕중의 왕으로 다시 오시어 공의를 선포하시는 재림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하는 사중복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성결교회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권능으로 선포하는 마지막 때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중복음 연구소)

2.사중복음 고전 설교

1. 중생 설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18)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거듭나는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도 없고, 들어 갈수도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열심있는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으로 당시 의회 70인 중에 한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생 랍비로서 곧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아나겐나오”라고 하는 희랍 말인데, “위에서 난다.” “꼭대기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난다, 위에서부터 난다, 또는 처음부터 난다, 다시 난다란 뜻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결국 공간적으로는 위에서 즉 하나님께서 난다는 뜻이고, 시간적으로는 다시 즉 새롭게 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란 하나님께서 새로 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생이란 열심있는 종교심도 아니고, 해박한 지식으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덕적 수양으로 인격을 향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노력이나 각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로워지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거듭 중重, 날 생 生), '거듭난다', 신생(新生), '새로난다', 재생(再生), '다시 난다'고 표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후 5:17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했는데, 신창조를 의미합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예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주인이 달나라에 가려면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가야 합니다. 만일 그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가자마자 죽고 말 것입니다. 달나라에서 살 자들은, 거기서 살 수 있는 생리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살 수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려면 중생으로 인한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해도 살 수 없습니다.

흔히 교인 중에는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찬송가도 잘 부르고, 교회당도 새로 지어서 바치고 또 술이나 담배나 아편같은 것 다 끊어버리고 착실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으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는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또 교역자 노릇을 했으니 아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당시에 공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실행하기에 힘을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에 철저하였고, 예배드리는 시간만 교회 와서 살짝 드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온 종일을 한 시간도 에누리 없이 하나님께 바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십일조를 철저히 바쳤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월급만 십일조로 바친 것이 아니라 박하와 회향 근채 이런 것들도 꼭 바쳤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토색하지도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부로 아무거나 보지 않으려고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다니다가 피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거동하지 않는 위신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참으로 덕망높은 선생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이만한 인격을 가진 자가 우리 중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요3:5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칼빈은 “성령”으로 풀이했습니다. 물이 성령이라면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을 한 것이라면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세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도 역시 합당치 아니한 것은 세례란 신앙고백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의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구원받는 요건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세례 의식을 행치 않아도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세례식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특별히 무슨 공로가 없었지만, 예수를 믿었으므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란 무슨 뜻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또한 타당한 말씀입니다. 벤전 1:23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약 1:18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엡 5:26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딤후 3:5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상의 성경말씀을 종합해 볼 때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지는 것입니다. 고전 4:15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복음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거듭나게 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막 1:15에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설교한 제목 요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Gospel인데, 헬라어로는 ‘유망계리온’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눅 2:10에 보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나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라야 구주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은 인간들은 모두 죄를 범했다고 말씀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십자가에 수 십 번, 수 만 번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없는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성령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분이므로, 그는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예수만이 정말 죄없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고난을 받으시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머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양손이 지은 죄로 인하여 양손에 쇠못을 박히시고, 우리의 양발이 지은 죄로 인하여 양발에 쇠못을 박히시고, 우리의 몸이 지은 죄로 인하여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정말 보배로운 피입니다. 죄없는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죄를 지었으니 틀림없이 멸망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었으니 죄값으로 죽도록 해야 하지만, 한편 하나님

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다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려면 다 죽어야 하지만, 한편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나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있을 곳이 예비된 다음에는 장차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 심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부터 이 땅위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보내신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의해서입니다. 아무나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전 12:3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꽃이 있습니다. 꽃을 보고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꽃에 나비가 찾아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꽃이 나비를 먼저 불렀습니다. 꽃의 향기가 나비에게 찾아와서 나비 코에 들어가서 나비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비가 향기 냄새를 맡아서 꽃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알고 보면 꽃이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를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해서 주께 나오시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 15:16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중생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므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새 영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바람이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져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잉태를 했습니다. 처음 어린이를 배었을 때는 별로 달라진 것 없지만, 얼마 후 오래 가면 배가 불러서 어린이를 해산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정죄함이 없습니다. 롬 8:1-2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죄에서 자유,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합니다. 사실은 전혀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고, 완전무결한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완전무결해서 의인이라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 입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하지만 예수님이 옷입혀 주셨습니다. 그 의를 우리가 옷입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를 보고, 그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 까닭에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엡 2:8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셋째, 중생한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벌써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 3:36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요 5:24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6:47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출처> 이만신, 『성결한 생활』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1983)

<중생>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요한복음 3:1~16)

중생과 성결은 뗄 수 없는 관계

성결 교회의 전도 표제인 사중복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중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생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 받음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 따르면 제1단계로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하시고, 제2단계로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치유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다른 교단에서 강조하지 않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것은 성결의 복음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도 모두 중생을 말하고, 신유도 말하고, 재림도 전합니다만, 성결에 관한 것은 유독 성결교회만이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생하는 것이 먼저이기에, 오늘은 중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는 중생을 강조해서 전합니다만, 사실상 중생과 성결은 하나입니다. 중생은 어두운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산(加算)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결은 있는 원죄를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산(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가산(加算)과 감산(減)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나가면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원리입니다. 원죄가 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가 나가게 되어 마음이 진공상태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하고, 죄가 나가는 것을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물러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니, 그것이 온전한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성결은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생을 하면서 나가게 되는 죄는 원죄가 나가게 되는데, 그 때에 자범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성결의 시작이 되며, 성결은 중생의 완결이라고 합니다. 중생이 완성되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생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렇지만 충만히 들어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성결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중생을 말하면서 성결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니고데모라고 하는 점잖은 유대 선생 하나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찾아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날 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아주 심오한 진리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상 생활 중에서 거듭남의 이야기를 했을 때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확실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관원이며 고위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변화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중생의 비밀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사람은 생일이 두 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생일이 두 번인 사람은 한 번 죽게 되고, 생일이 한 번 인 사람은 두 번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한 번만 죽게 되고, 생일이 한 번인 사람은 육신이 죽고 영혼이 또 죽기 때문에 두 번 죽게 된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난 사람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로부터 난 자들은 강아지, 한국 사람으로서 난 자들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미국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서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영으로 난 자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속담에 씨 도둑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둬낸 자들은 하나님의 씨앗이 담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닦기 싫어도 하나님을 닦았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 모습에서 비쳐지게 됩니다. 반면에 성직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둬나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구원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씨, 하나님의 씨가 그 영혼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마음에 심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둬남과 하나님 나라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이 거둬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시각장애인(맹인)이라고 하는데, 시각장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글자를 보아도 읽을 줄 모른 사람을 문맹(文盲)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과 사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장님,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영맹(靈盲)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거둬남을 경험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거둬나는 것은 말씀으로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 “물로 씻은 것과 같이 말씀으로 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은 생명력을 주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거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둬남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어서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다 죽게 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뱀에 물려 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뱀뱀을 만들어서 그 뱀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 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뱀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거둬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주제요, 핵심이요, 가장 중심이 되는 초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제로 드러진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거둬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새롭게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처> 김태구, 『온전한 구원, 거룩한 생활』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9)

2.사중복음 고전 설교

2. 성결 설교 < 성결의 복음 >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 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벤전 1:13-19)

사도 베드로는 본문 16절에서 레위기 (11:14)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중 완전성을 말할 때 진(眞), 애(愛), 성(聖)을 듭니다. 이것만이 완전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아담이 타락하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인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결이란 영원 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며(엡1:4), 하나님의 명령이며(벤전1:15-16, 마 5:40), 하나님의 뜻이고(살전4:3,7), 하나님의 약속 (살전5:23)입니다.

1. 성결이란 무엇인가

성결이란 히브리어로 '카도슈' 헬라어로는 '하기야모스'라고 하는데 거룩함, 독특함, 구별됨입니다. 또한 정결, 성화, 봉헌의 뜻도 있습니다. 성결이란 어의 속에서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완전하며 흠이 없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영어에서도 Sanctification(신성화, 성화), Holiness(신성, 청렴, 결백)로 표현하고 있는데 Sanctification이 새로워짐의 변화를 말한다면, Holiness는 완전 성결의 표현입니다.

성결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세례를 받은 결과를 말하는데 중생 후에 2차적으로 받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결은 사람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세워 주심을 뜻합니다(행1:4-5, 8, 눅24:49, 롬5:1, 갈 3:14, 요1:9, 히12:14).

성결에는 두 가지 성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절대적 성결로서 이사야7:15의 말씀처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성결이 있고, 두 번째가 상대적 성결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벧전1:15)"는 상대성의 원리를 갖는 성결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결하시기에 우리도 성결케 되는 관계성으로 인간은 상대적 성결만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성결은 내면적인 것이어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활동하여 마음 속에 완전을 이룩하려는 역사입니다. 또 성결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으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성결은 중생(重生)으로 인하여 생겨진 생명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므로 중생은 성결의 시작이요, 성결은 중생의 완성입니다. 성결은 끊임없이 죄악에 대해서 도전하므로 고상한 기독교적인 생활과 인격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생활입니다(빌 3:13-14). 또한 성결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갈 5:22). 자기의 사상도 소원도, 감정도 욕구도 송두리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변화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흔히 오래 믿은 기독교인이나, 목사님들을 보고 예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 냄새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인내, 양선, 온유, 충성, 절제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 냄새를 나의 안에 간직하기 위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만이 (마22:37-38) 성결케 되는 지름길입니다.

2. 어떻게 성결할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기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17:17).“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시119: 9).“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요15:3).“ 오늘날 은혜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거룩케 되고 구별된다는 생각에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한다면 진정한 기독교를 망각하고 맙니다. 성령이란 곧 성경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둘째로,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저산에서 타오르는 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 주었던 사실이나(사6:1-10),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다는(눅11:10-13) 약속이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명령을 받들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120제자의 이야기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라(행1:14)는 말씀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통신 수단인지 강조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도 목회 생활 중에 교인들에게 강조한 은혜받은 비결로 교회에 충실히 참석하라, 성도간에 충실히 교제하라, 금식과 기도생활에 열중하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중을 크게 둔 것이 바로 금식과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성결케 되는 첩경은 기도 생활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찌어다(롬6:6-11)"는 바울의 고백이나,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행15:9)"라는 사도들의 행적은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함을 입증합니다. 성결은 오락가락하는 믿음에서는 절대로 그 심경이 맑을 수 없습니다. 앞서간 많은 성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있었기에 벌거 벗은 채 모진 매를 맞고, 담배불에 지지우고, 찢겨 죽으면서도 그 피의 호소는 오히려 핏박의 땅에 순교의 십자가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흔들

림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에 살게 합니다. 믿음은 무거운 지토(地土)를 뚫습니다. 믿음은 산을 허물어 평지를 만듭니다. 믿음은 거친 파도를 가르며 망망한 대해에 기적의 기선을 띄워 놓습니다. 인류역사상 믿음처럼 위대한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넷째로, 순간적으로 받습니다. 농사꾼 기드온이 타작 마당에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포악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순간적으로 받은 것처럼, 성령은 순간적으로 받습니다. 22살의 법학도 마틴 루터가 친구와 같이 본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모여들고 순식간에 소나기로 변하여 폭우가 퍼부었습니다. 갈 길을 차단당한 루터는 처마 밑에 웅크리고 서서 비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루루 쿵쿵쾅’ 하는 뇌성벽력이 일며 전광석화 같은 번개가 옆의 친구를 훑쳐가 버렸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친구의 죽은 얼굴을 들여다 보는 루터의 감회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비감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적인 체험은 끝내 법학을 버리고 신학을 택하게 했고, 신 앞에 정직히 설 수 있는 성결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역사의 엄청난 교훈을 쉽게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다섯째로, 성령으로 받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 3:5)“,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라는 말씀은 성부시대, 성자시대를 살다갈 후배들에게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랐다가 예수님이 하산하셨을 때 사죄들린 딸의 어머니와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할 만하시거든 내 딸의 몸에서 사죄를 찾아 주옵소서“ 였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으며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었기에 우리들도 하면 되겠지 하고 ”마귀야, 여인의 몸에서 나오라“고 소리쳐 보았지만 그 딸은 더 발광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막상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도 ”할 만 하시거든 고쳐 달라“고 애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망신만 당했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 성결케 되자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일으켰고, 옥문을 열었으며, 병든 자를 살렸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결케 합니다.

3. 성결은 어떻게 유지하는가

날마다 십자가를 저야 합니다(마16:24). 바울이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며 살았다고 로마인에게 고백했고(롬8:13),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갈5:24)과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는다는 증언은 우리의 최고 목표는 성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죄를 무시해서도 안됩니다. 모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바울의 경고나(살전 5:21), 선한 일에 힘쓰라(벧후1:4-9)는 베드로의 설교는 작은 죄라고 하여 묵과해 나갈 때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작은 죄는 세균처럼 번식해 나갑니다. 곰팡이인 박테리아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무서운 번식력을 가져 물건 전체를 썩게 합니다. 악은 근절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출처> 이만신, 『성결한 생활』

<성결과 성령세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를 분
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5:6~9)

구원의 삼단계

구원에는 삼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중생의 단계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사해 주시면서 자범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 속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결의 단계인데, 우리 속에 있는 원죄,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 마음의 안방까지 완전히 점령하신 것을 성결이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말로는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다시 오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죽지 않는 육신으로, 병들지 않는 육신으로, 완전한 육신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결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고히 되며,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중생은 구원의 시작이요, 성결은 구원을 든든하게 세워 주는 것이요, 영화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듯 삼단계로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알고 받아야

성결과 성령세례는 손바닥의 앞뒤와 같은 것으로, 성결은 적극적인 면, 성령세례는 소극적인 면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성령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면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강조점이자 성결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강조하지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성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동시에 한 자리에 모여 있던 것입니다.

태양은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밝은 태양, 보이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하나이지만 역할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세 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세 가지 역할의 면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계획, 지휘, 통치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대가를 지불하는 역할을 하시고, 성령은 현장에서 집행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지도하시고 감독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A. B. 신슨 박사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이고, 예수께서 살아 계신 33년 간은 예수님이 땅에서 활동하신 성자의 시대이며,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보혜사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활동하신다고 하면서, 이 성령의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에서 거룩한 영으로서, 더럽고 추악한 세대를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며 믿는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시대는 큰 환란과 혼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는 아들의 시대,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을 알아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며, 받되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는 구약의 사람이 있고, 이미 지나간 예수님만을 알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알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옆에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누가 제일 가까우신가요? 단연 성령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아니 아예 그 안에 들어오셔서 존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17절 말씀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하늘 위에 계셨고, 예수님은 가까이 오셨지만 우리 옆에까지만 오셨고, 성령님께서 드디어 우리 속까지 들어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7절 말씀에서는, 오순절 이후에 전혀 새로운 개념이 시작되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인공이 되시고,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다루실 건가요?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기고 주님만을 모시고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은 기도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지극히 큰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고 말씀을 하실 때, 보배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질그릇 속에 귀하고 귀한 보배, 즉 성령 하나님을 담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너무나도 귀한 보배 성령 하나님이 질그릇 속에 있을 때, 그 질그릇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이 성령의 진리가 참으로 귀하고 진기한 것이며, 하나님 사랑의 최대한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계신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대단한 은혜요 역사입니다.

역사하시는 성령

A. B. 심슨 박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가 되시고 내가 성령이 되는 온전한 합일을 이루게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의 중생이 있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넷째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구원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난로에 가까이 갈 때 열을 받는 것과 같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그 순간 바로 식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시적인 작용입니다. 이것은 미신자에게도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필요를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중생의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성령께서 완전히 점령하신 상태, 성령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상태, 그것을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기능적인 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당하는 직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직임을 행하기 위해서,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됩니다.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도 말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중생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만 받아서는 부족합니다. 은사도 받고 구원과 중생의 성령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땅에 불을 붙이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이 붙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 내 몸에 십자가의 불이 제대로 붙여질 때에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에 오순절날이 임하매 성령의 불이 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지상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벽히 장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완전히 드리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영혼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오셔서. 내 이성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내 몸의 모든 기능 속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세례의 상태입니다. 웨슬리 같은 인물도 성령을 받은 이후로 얼마나 큰일을 행하였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을 모셔 들이십시오.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성령을 갈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출처> 김태구, 『온전한 구원, 거룩한 생활』

2.사중복음 고전 설교

3. 신유 설교 <신유의 복음>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103: 1-5)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행복스럽게 살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인류에게는 원치 않는 질병과 죽음이 찾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의 원인은 사탄의 흥계와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욕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욕의 생명만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그 몸을 맡기실 때에 사탄이 욕을 쳐서 병이 나게 했다고 했습니다(2:7). 또 예수님께서서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 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눅13:13). 질병의 두 번째 원인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2:17)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질병을 보내리라(레26:16, 신28:16-22)고 하셨습니다.

신유란 무엇인가

신유란 인간의 모든 병을 인간의 능력과 힘에만 의지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당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신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15:26).”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만병의 대의사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시103:3)”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2천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그 때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용서해 주십니다. 동시에 2천년 전에 병을 고쳐주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같은 믿음이 신유에 대한 신앙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

신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병들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병 낫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며 모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문제를 영혼과 정신문제에만 집착해 다루어 육신의 문제와는 아무런상관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만약 이들과처럼 육신을 영혼과 분리하여 생각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는 산송장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육신과 영혼이 결합 될 때에만 생명력이 있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육은 반드시 강건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의 은총에 대한 일부분으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악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이사야53: 4-5)”고 했습니다. 주님께서실로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병과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2:24)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여러분들도 나음을 입을 수 있음을 의심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하신 은총과 결부되는 놀라운 신유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같이 병은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병을 고친다고 했는데 (신32:39, 시68:20, 호1:6) 오늘 여러분들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유의 은총에 대한 복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교리로 주장함은 이 때문인 것입니다.

신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첫째는,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약5:16)”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원망하거나 병을 고쳐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원인을 규명해 봐야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과로하거나 여러가지 생리의 부조화로 인해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왔다

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렘 3:40)” 함과 같이 병이 났을 때 자기의 과거를 반성해 보고 겉으로만 손 들고 용서해 달라고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를 해야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과 동시에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 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약 5:14)”고 했습니다. 이같이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장로가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으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장로들을 청하라고 한 말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세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밑에는 사도들이 세운 장로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들을 모셔다 병 낫기 위해 기도받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강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데나 대고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주시는 의미

성경에는 병 고치는 역사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들추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훈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 고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에 2/3 이상의 역사가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수많은 병자들의 여러 가지 병들을 고쳤습니다. 이같은 실례는 성경에만 있는 실례가 아니라 오늘날도 도처에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징벌과 죄를 면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표이며, 어떤 병은 그 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단련시키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데 이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도 정말 원치 않는 병이 있어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떤 죄 값으로 나는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네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요11:4). 예수님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하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커녕 나흘만에 예수님이 갔을 때 벌써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거라.”고 명령할 때에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렸습니다.

<출처> 이만신, 『성결한 생활』

<신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2절)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오늘 저는 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역에 나왔을 때 동경에서 사시는 현재 가장 유명하신 전도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물론 신유를 믿지 않는 분이신데 혈압이 높아서 잠시 정양할 것을 의사로부터 듣고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였을까요? 신유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의지하는 대신에 시간에 의지하는 경향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유도 좋지만 정양하는 것도 필요하다.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지 않으면 안 될까, 어디로 가서 살지 않으면 안 될까, 몇 개월 동안 휴양하지 않으면 안 될까 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신유는 초자연적인 역사

신유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즉시로 나타납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역사해주심을 신유 신앙에 새롭게 더하여 믿기를 원합니다. 호흡기병 환자는 따뜻한 곳에 가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따뜻한 곳에 간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큐우슈에도 병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친구가 정양을 위해서 홋카이도의 산속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요코하마에 있는 쇼난 지역은 건강에 좋기로 유명한 곳으로 병자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한 사람까지도 병자가 되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폐병은 50대보다는 10대가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미신자들처럼 여자는 19세와 33세, 남자는 25세와 42세가 액년(厄年)이라고 해서 큰 소란을 피우지만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는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받을 때요 구원의 날

믿는 자에게 액년은 없습니다. 언제나 좋은 날만 있을 뿐입니다. 액년이다 길일이다 등은 농담이라고 해서 안됩니다. 그런 미신 같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홀리네스)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강건(健康) 또는 잘 되고(富)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혼이 거룩한 것처럼 모든 것에 잘되고 몸도 강건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성결의 간판은 나면서부터의 죄로부터 성결함을 받고 성령에 충만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번성과 강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결은 강건의 복음입니다. 영혼과 육이 튼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몸을 천하게 여기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괜찮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한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구세주이심과 동시에 몸의 구세주이십니다. 영계의 주님이자 동시에 물질계의 주님입니다.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도 지배하십니다.

신유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

치유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이나 신사에 가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신앙이 단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모시고 있는 신이 듣든지 말든지 열심히 빌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 신자는 서먹서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창피 당하는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지 하나님 뜻이라면 하고 도망갈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도망가려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병이 나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거룩한 것처럼 몸도 강건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열을 내면서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고 건강하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치고 “신유는 당신의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유는 십자가의 결과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병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명확한 말씀 위에 서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신유는 십자가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사람은 차포를 주지 않으려면 왕을 내나라는 식의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약삭빠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약도 먹는,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잘 안 되면 약으로, 약으로 잘 안 되면 하나님한테라는 식으로 넘어져도 공짜로는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기도하면서 약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70퍼센트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나머지 30퍼센트는 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유입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고 싶다면 치유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함을 받지 않고 죽는다면 그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세요.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모세 때에 바라본 자가 즉시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을 보는 대신에 너무도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병과 싸웁니다. 그러나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최면술에서는 나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온 방사선은 사람의 건강에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빛이 오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믿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가

성경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됩니다. 세균처럼 불신앙이 붙어오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기도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병들었을 때에는 남편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제 남편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낫나요?"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엄마! 제가 기도해드릴게요"라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최면술이나 정신요법 또는 새하얀 옷을 입고 묘한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넷째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교회의 장로나 신앙의 연장자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반드시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손을 대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줄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하세요. 전도사나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처> 나카다 주지, 『나카다 주지의 사중복음』
(부천: 서울신대출판부 글로벌사중복음연구소, 2022)

2.사중복음 고전 설교

4. 재림 설교

<그리스도의 재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 25:13)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특히 성결교회에서는 사중복음 중의 하나로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요, 주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서의 중심이 예수님의 초림인 것과 같이 신약 성서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무엇인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남녀 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자녀는 부모에 대한, 국민은 국가에 대한, 국가는 국민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모두 육에 속한 희망입니다. 이 육에 속한 희망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영속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은 말씀대로 산 소망이요(벧전 1:3), 복스러운 소망입니다(딤후 2:13). 또 세상의 소망은 오히려 그 소망이 이루어진 후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후회하게 되기도 하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신령한 소망’(사49:23)이기에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런 소망’(벧전 1:8)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신실한 약속이요, 성경에 300여 번씩이나 강조하신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직접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1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흰 옷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가 증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사11:1-5), 예레미야 선지자(렘23:5), 에스겔 선지자(겔37:22)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으며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 2장 44절에서, 에녹은 유다서 14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강림하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예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7, 12, 20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재림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6)“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끔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XX 때에 재림한다“ 또는 ”×가 재림주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들은 결코 성경에 근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의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그 징조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징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회의 혼잡과 지식의 발달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만 해도 얼마나 혼잡한지 모릅니다.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점점 고속화, 스피드화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32-34절에 보면 세계가 사상적으로 분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2-33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동향을 보려거든 주님의 오실 때가 임박한 줄 알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피어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기근이 심하게 들 것이고 전쟁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노아의 때와 룻의 때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바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때인 것입니다. 또 룻의 때와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음란한 때를 상징합니다.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가

이렇게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온 줄을 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13절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 처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 보면 처녀나 신부 또는 여자와 같은 여성 명사를 써서 사용한 말씀은 대개 교회를 말하고 어느 때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이나 요한계시록 9장 7절, 20장 2절에 보면 신자를 신부로 표시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기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기름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1장 1-3절, 히브리서 1장 9절, 요한1서 2장 20절, 요한1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교회가 있고 미련한 처녀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도 없고 기름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에베소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 아볼로는 모든 면에 뛰어난 목회자였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교회에 사도 바울이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성령은 알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다.

성결교회는 성령을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중생이 물세례라 하면 성결은 불세례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으나 어리석은 처녀는 그제야 없는 기름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다고 그분의 교회에 나간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식 모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나’와 ‘하나님’과의 접촉이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접촉일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을 받는 것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덩달아서 기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배출한 한국의 대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은 심지어 변소에 있을 때도 ‘주님 오시지 않는가’하고 순간 순간 주님을 맞이할 자신을 살펴보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뚜렷하게 주님이 예언한 대로 되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보고 깨달아서, 미련하고, 게으르고, 자다가 잔치에 참석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셔서, 신랑되신 우리 주님을 다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처> 이만신, 『성결한 생활』

<재림>

성경에서 보는 구약의 예언

먼저 말라기 3장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을 죽음으로 말씀하심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못박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조차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재림을 죽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정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자들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재림 말씀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의 예를 들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5장 3절에서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낮이라는 것은 태양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한 재림 신앙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태복음 6:9-13).

이상의 기도는 크리스천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기도로 우리는 이것을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결인들도 이것을 읊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재림의 빛으로 보지 않으면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밤 그것을 충분히 쏙개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완전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성결의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이 세상에서 응답받는 것이 있고 저 세상에서 응답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오늘 밤 반드시 응답됩니다. 비록 죽은 뒤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기도로 부모 또는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5억만 명의 신자가 있어서 이 기도를 하고 있겠지만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밤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현재 세계의 어딘가에 그런 곳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나라라고 말하는 서양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일본 등에서는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입니다. 이것도 재림의 빛으로 보지 않으면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주 예수께서 오늘 밤 오신다면 이 세상에서의 식사는 오늘 저녁 식사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예수님 곁에서 먹게 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채무입니다. 죄의 부채를 사함 받았음에도 매일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단 죄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채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크리스천은 이 채무가 있습니다. 부모의 채무는 자식이 갚아야만 합니다. 채무를 갚는 것을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채무가 없어졌을 때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입니다. 세계는 결국 시험의 시대 즉 밀을 까부르는 때가 옵니다. 주 예수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유래없는 대혼란이 옵니다. 또한 기근과 대지진이 일어나고 세계 인구 3분의 2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억 명 중에서 10억 명이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임할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까지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며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환난 시대는 언제 오는가

그것은 신자가 걸러지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음을 후회하고 슬퍼하며 주 예수를 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가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남아서 천사와 같이 된 신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천 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 때에는 전쟁과 슬픔, 전도자도 목사도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 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때에는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 때에 이사야 1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동식물도 모두 변화되어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토요일 밤에 있습니다. 내일은 주 예수의 선데이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계속됩니다. 은혜의 시대가 지나면 다음은 환난시대가 7년 혹은 70년 계속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이 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왜 우리는 성결함을 받아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처럼 몸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던지고 두려움 없이 나아올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성결함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성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결함을 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됩니다. 하나님 저를 성결하게 하옵소서.

<출처> 나카다 주지, 『나카다 주지의 사중복음』